

제목 : 누가 쓰임받는 일꾼인가?

본문 : 행 1:21-26

시작찬송가 : 260(새496), 271(새495), 514(새459)

헌금찬송가 : 179(새185), 259(새502), 375(새331)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12사도는 장차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함께 다스리는 최고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롯유다는 이 귀한 직분을 빼앗겼고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한 명의 사도를 새로 보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일어나 12 사도의 수에 가입할 한 사람을 뽑을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이 두 사람을 추천하고 난 후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마티아가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 중 특별히 몇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교회 앞에 세우시고 세움 받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도 특별히 부름 받아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1.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쓰십니다.

- ① 주님은 주님을 만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는 분명한 소명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도를 뽑을 때도, 항상 주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았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 하셨습니다.

롬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행 4:19-20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 ②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개인이나 민족을 세우시고 쓰시기 전에 미리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통해 준비되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마 21:2-3 이르시되 너희 맞은 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딤후 3:6-7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2. 주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 ① 열 두 사도는 주님이 친히 택하셨습니다. 가롯 유다 대신 다른 사도를 세우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친히 택하시도록 맡겨 드렸습니다.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일꾼을 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 기도로 준비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행 13:2-3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렘 17:10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 ② 우리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뜨이며 듣는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딤후 2:20-21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3. 사람이 제비를 뽑았으나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① 사도들은 기도하고 제비뽑아 맞디아를 가롯 유다 대신 12사도의 수에 넣었습니다. 비록 사람이 제비를 뽑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 맞디아를 세우셨습니다.

잠 16:33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삼상 16: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②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신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충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후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엡 4:11-12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고전 4: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눅 17: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의 한마디 : 충성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 | |
|---|
| 1.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하여.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2.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3.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4. 공동기도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
|---|

명성교회